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 감염 전파 사전 차단”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현장을 가다

(3)광주시소방본부

확진자 등 권역 이송만 6천여건...대구 등 타지역까지 맹활약 코로나 전담 구급차량 10대...지역민 안전에 최우선 '고군분투'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들쭉였다. 코로나는 감염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잠잠할 수 없이 확산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 감염 전파를 막지 못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되다 'n차 감염' 등으로 이어져 집단감염 또는 무더기로 확진자를 발생시킨다.

광주시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은 지난해 신속한 이송 지원 체계를 구축, 감염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에서 의료진들 못지않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확진자·의심자·자가 격리자·해외입국자 등 수천여명을 병원 등 관련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시키는 업무에 고군분투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방의 주된 역할은 이송 지원이다. 방역당국 등에서 구조 요청 시 관내 생활치료센터(광주소방학교), 의료원, 빛고을전대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업무다.

권역은 물론, 전남·전북, 심지어 대구·경북까지 하루를 꼬박 세울지라도 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장거리 이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이송건수는 총 6천40건으로, 관내 이송 5천586건, 관외 이송 229건으로 집계됐다.

관내 이송을 살펴보면 확진자 869건, 의심환자 등 4천503건이며, 관외 이송은 전북 1건, 순천 11건, 강진 66건, 목포 31건, 군산 18건, 천안 34건, 나주 66건, 안산 1건, 인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구급 출동 요청도 급증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위험 상황부터 '발열·기침이 난다', '머리가 어지럽다'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때 순간 출동과 동시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출동 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확진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의료진들 못지않게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확진자를 이송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제공)

송할 경우에는 3인1조로, 무중상·기침 등 비교적 단순 의심 증상은 2인1조로 운영하는 등 탄력적 이송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지역 구급차량은 총 35대로, 코로나 전담 구급차량만 10대다. 이 중 관내에 몇 안 되는 '음압구급차'도 보유하고 있다.

음압구급차는 재난·감염병 특수 구급차로, 음압 설비와 음압 들것 등 중증 감염환자의 이송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는 것은 물론, 차량 내부 기압을 인위

적으로 떨어뜨려 병원이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각 보건소에서도 구급차를 1대씩 보유하고 이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검체 채취·역학조사 등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과다 업무로 인해 주로 관내 내 모든 이송 지원은 구급대원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종교단체 관련 코로나 확산세가 절정을

이룰 당시 현지에서 확진자 225명을 인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지로 이송했다.

3월에는 유럽·미국발 무중상 입국자들에게 대해 KTX 송정역사에서 자택까지 이송 지원을 하는 등 감염병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

5월말부터는 고교 3학년 등교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발생 즉시 선별진료소·의료원 등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6월 광주에서 본격적

인 확산세를 보이자 전담구급대와 인력 등을 별도 편성, 장거리 이송을 수행하는 등 이송 체계를 확립했다.

최근에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역 40개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구급차를 배치, 총 27명의 수험생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거동 불편 수험생 3명을 이송 지원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보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의료진만큼이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일꾼이 구급대원들이다.

코로나는 감염 전파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구급대원들은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리 등 사전 차단을 통해 시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다.

또 119상황 발생 대응과 능숙한 구조 활동으로 훈련이 된 덕분에 권역 어디서든 신속한 출동에 이은 응급처치까지 기동력과 접근성을 두루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이문희 광주시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급조정관은 "지난해에는 구급대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과 이송 지원으로 바쁜 한해였다"며 "광주지역 이송의 90%는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산세가 심각해졌을 당시에도 모든 구급대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토틀 뭉쳐 돕는데 힘을 보탰다"며 "현재 광주 확산세가 무서운데 의료진, 구급대원 등 모든 방역당국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기자

한파·폭설...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보

최근 3년간 광주서 노면 서리·결빙 교통사고 108건 육안으로 구분 어려워 차량 감속·수시점검 등 필요

북극발 한파 영향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 결빙(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경북 영천에서 노면 결빙으로 인해 차량 1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일까지 전남서부를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고, 7일부터 8일 오전까지는 집중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블랙아이스'에

주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는 추운 날씨에 눈, 비 등이 내리면서 노면에 얼어붙음으로, 아스팔트 색깔이 그대로 투영돼 검은 얼음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교량, 터널 진입·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광주지역에서 서리·결빙으로 인한 노면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8건이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 결과, 빙판길은 마른 노

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는 한 차량이 비탈길을 올라가던 중 노면이 미끄러운 탓에 뒷바퀴가 헛돌아 운전자가 당황해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차량을 몰던 김모(47)씨는 "차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 순간 당황했다"며 "머릴 전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 조심했는데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겠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차량 운행 전에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차량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운행 중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감속 운행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뒤야 한다.

급가속·급제동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코너를 돌 때는 감속하며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 대설, 도로교통사고,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역 내 53개 도로를 상습결빙구간 및 결빙사고 다발지점으로 지정했으며 도로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11곳에 자동염수분사 장치(원격조정)를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눈이나 비가 오는 예보가 있으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습결빙지역이나 결빙사고 다발지역은 사전에 염수를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태훈 수습기자

어린이집 원아 학대 의혹...지자체, 현장조사

광주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학대 의혹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파악에 나섰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역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주민이 아동학대 정황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원인은 생후 36개월인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한밤중 자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손을 벌면서 우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호소했다. 또 낮잠을 자다가도 깨어나 한참을 서럽게 우는 행동을 어린이집 등원 이후에 보였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보육교사 진술 취회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원아 학대가 없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고훈석기자

잘못된 호감 표현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

○...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전날 오전 9시께 광산구 일대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바

지를 벗는 등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동종 범행 전과는 없지만 이는 엄연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다시 불리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훈석기자

**돈 버는 자리
돈 되는 투자**
광산 엘리체레이크시티

문화예술 복합단지 42만평 도시개발(택지지구)확정
일반분양 84㎡ 610세대
광주의 마지막 2억7천만원대!!!

프리미엄 웰테크 하우스
광산 엘리체레이크시티 계약자 황금열쇠 증정!

062) 380 - 2984

시흥 유한회사 에스케이공업 시공 (주)서진건설 84㎡A·84㎡B 총610실

주인이 직접 만드는 양봉순대
고밥 국밥 수제 돈까스 전문점

양봉국밥	8,000	곱창전골 大	30,000
모듬국밥	8,000	中	23,000
머리국밥	7,000	매콤갈비찜 (22인분)	11,000
내장국밥	7,000	대패삼겹살 (22인분)	10,000
콩나물국밥	6,000	모듬수육	20,000
선지국밥	5,000	머리수육	15,000
수제돈순대	8,000	양봉순대 大	20,000
시골육개장	7,000	中	15,000

식사를 하시면
원두커피 1500원

모든메뉴 포장가능!
062-521-3303
광주 북구 자동차로 67 (자동차의 거리) 월~토요일 11:00~22:00